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1주일(예수 성심 성월)
제30권 29호(다해) 2010-6-13

[묵상]



죄많은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프레스코, 성 안젤로 성당, 카푸아, 이탈리아>

죄인이라고 소문난 한 여인
예수님께 사랑을 베풀니다.
아무에게나 베풀 수 없는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걸림돌이 되어
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죄인이기에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기에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고
큰 사랑으로 보답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는
큰 사랑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죄인의 큰 사랑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저희와는 생각이 다르십니다.
사랑하는데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랑받는데 다른 눈을 의식하는 우리
예수님은 큰 사랑 자체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서는 용기,
예수님만이 자기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주실 수 있다는 확신,
그 여인의 용기와 확신이 부럽습니다.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첫째/셋째주-대학부(PACEM)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2: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오상훈 요한
	(생)이상수 다니엘, 정해홍 요셉, 케네스 안드레아 해밀튼
주 일 낮 미사	(연)이금순 마리아, 박준구 요한,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김중환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엄은섭 도로테오, 이재우 마티아, 이복내 말파, 홍정숙 엘리사벳, 김시형 시릴로, 정윤봉 베드로, 노식 베드로, 이경수 요셉, 김순녀, 홍관 요셉
	(생)윤희동 안토니오 & 남열 세라피나, 고규재 체칠리아, 김선영 스테파니아, 민영준 마르코 & 민석준 토마스, 유종민 미카엘, 김영길 안드레아, 황학수 마리아, 문 바티스타 수녀,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무엘 하권(2 Samuel) 12,7ㄱ-10.13

화답송 ○주님, 내 죄의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전례성가 81, 연중 제11주일 다해>
 ○복되다, 그 죄 사하여지고 그 허물 씻어진 이여!
 주께서 타을 아니 돌리시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여! 복되도다.○
 ○내가 당신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아니 감추며
 “주님께 내죄악을 아뢰나이다” 하였을 제, 내 죄의
 잘못을 용서해주셨도다.○
 ○당신은 내 피난처, 곤경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나를 휘감아 주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
 즐거워하라. 마음 바른 사람들아, 모두 다 춤추며
 기뻐하라.○

제 2독서 갈라티아 서(Galatians) 2,16.19-21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셨네.○

복음 루카(Luke) 7,36-8,3<또는 7,36-50>

영성제송 주님께서 청하시는 오직 한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모든날, 주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401	310
봉헌	256	270
성체	291	291,299
파견	234	226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

하느님께서 이 계획을 통해서 삶의 모든 가능성들을 하나
 로 묶어내시며, 죄에서 나오는 죽음의 세력에 대항하신다. "하
 느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자들의 멸망을 기뻐하시
 지 않는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살라고 만드셨으며, 세상의 모
 든 피조물들은 원래가 살게 마련이다."(지혜 1,13-14)

40). 생명의 신성함은 태초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그의 양심
 속에 새겨진 생명의 불가침성을 불러일으킨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느님께서 그에게 하신 "네가 어찌 이런 일
 을 저질렀느냐?"(창세 4,10)는 질문은 모든 사람들의 체험을
 설명해 준다. 인간은 자기 양심의 깊은 곳에서 늘 자신과 타인
 들의 생명의 불가침성을 상기하고 있다. 그것은 창조주요 아
 버지이신 하느님의 소유물이며 선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속
 한 것이 아니라고 상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의 불가침성에 대한 계명은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인 "십계명"의 핵심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출애
 34,28 참조) 그 계명은 무엇보다도 먼저 살인을 금지한다. "살
 인하지 못한다."(출애 20,13), "죄가 없고 올바른 사람을 죽이
 지 말아라."(출애 23,17) 그러나 이스라엘의 후대 입법에서 이
 루어지듯이, 타인에 대한 모든 개인적 가해행위도 금지된다.
 (출애 21,12-27 참조)

물론 이미 구약 안에서 이러한 생명의 가치가 지닌 의미가
 충분히 나타나기는 하지만, 아직은 산상 설교에서와 같은 세
 련된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형법의 몇 가지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 법
 들은 몇 가지 형태의 육체적인 처벌이나 심지어 사형까지 내
 린다. 그러나 그 법들이 지니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육체
 적 생명의 불가침성에 대한 존중과 인격의 고결성에 대한 강
 력한 호소이다. 이 메시지는 신약에서 완전한 형태에 도달하
 게 된다. 이 호소는 이웃을 자신처럼 여기라고 하는 긍정적인
 형태의 계명 안에서 절정에 다다른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아끼라."(레위 19,18)

41). 주 예수께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명하는 긍정적인
 명령 안에 담겨 더욱 완전한 형태로 표현된 "살인하지 못하
 다."는 계명을 가장 강력하게 재확인하신다. "선생님, 제가 무
 슌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하고 묻는 부
 자 청년에게 예수께서는 대답하신다.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
 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마태 19,16.17). 그리고 계명들
 중에서 "살인하지 말아라."(마태 19,18)는 계명을 첫 번째로
 꼽는다. 예수께서는 산상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사람들과
 바리사이와 사람들보다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시며 또
 생명에 대한 존중도 명하신다. (◆계속)

우리 시대의 오백 데나리온 對 만 탈렌트

하느님 앞에 누가 허물이 없고 빛이 없다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기에 “하느님께 맞갖은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시편 51,19)한 시인의 고백은 여전히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느님 앞의 죄는 무엇일까요? 1독서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야를 칼로 쳐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 다윗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였습니다. 사람에게 저지른 패악이 주님 앞에 지은 죄였습니다. 복음의 바리사이는 한 여인을 고을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죄인 정도로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 율법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에 대해 채권자(하느님)과 채무자(사람)의 관계(빛의 탕감, 죄의 용서)의 비유로 하느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사랑)을 가르치십니다. 2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의로움을 인간들의 율법에 의한 행위 따위로 손에 넣을 수 있다고 가며 여기는 그 태도야말로 하느님 앞에 저지른 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기에 조용히 있어야 지!(죄인인 주께에 쓸데없이 세상사의 시시비비를 따지려 들으려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복음의 바리사이처럼 하느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하느님 앞에 범하는 더 큰 죄악일 수 있습니다. 1독서의 다윗의 경우처럼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자 가까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시며, 율법으로 죄인이었던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드님까지 속죄 제물로 내어 놓

으시는 정의와 은총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죄인이었던 다윗을 당신 백성에 봉사하는 성군으로 만드셨으며, 율법에 따라 그리스도인을 제거하려 했던 바오로 사도를 하느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복음의 여인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랑으로 하느님 사랑에 응답합니다.

소수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독단이 행해지는 사회, 다수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데도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 그 사회에서 짐짓 근엄하게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어 해방을 선포하)는가?”고 말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을 놓고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 앞에 죄인이 아닌가?”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을 놓고 따지거나 불평불만 갖지 말고 무조건 믿고 따르라”고 으박지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 탈렌트를 탕감 받아놓고 백 데나리온을 빚진동료를 감옥에 가둔 형국입니다. (마태 18,23-35 참조)

하느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총과 의로움을 믿기에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주님께 바치며, “복음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진실한 행동으로 주님을 충실히 따르”고, 강과 산과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며 (정의와 사랑의)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참회와 쇄신을 추구합니다.” (교회헌장 8항)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
서울 대교구 신수동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승연 크리스티나	박혜경 레나타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토린스 동 2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황지영 안젤라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린스 서 2반

- 4 -

공지사항

- ◆ 백삼위 M.E. 셰어링(Sharing)
 ● 일시 : 6월18일(금) 오후 7시, 강당
 ● 문의 : 김유스티노 & 최연 루치아 본당 대표부부 ☎(310)347-1665
- ◆ 주일학교 학생회 Lock-In
 ● 일시 : 6월18일(금) 오후 7시~19일(토) 낮12시 성당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종업식
 ● 일시 : 6월20일(주일), 주일학교 :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 중예, 한국학교 : 오후 1시 성전(학예발표회 겸함)
 ● 여름방학 시작 : 6월27일(주일)부터
 ● 개학 : 9월12일(주일)
- ◆ 주일학교 Summer Camp
 ● 일시 : 6월25일(금)~27일(일), 금요일 오전 9시 성당집합
 ● 장소 : Cachuma Lake (Santa Barbara)
 ● 대상 : 3-12학년 * 내용 :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 주거:단체 텐트 * 참가비 : \$60
 ● 준비물 : 슬리핑백, 세면도구, 모자, 자켓, 여벌옷, 선크림, Repellent cream, 물통, 주일학교티셔츠,수영복, 주일헌금
 ● 마감일 : 오늘 주일(6일) *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12학년
 ● 기간 : 7월23일(금)~25일(주일)
 ● 참가비 : \$195 * 접수 : 주일학교 사무실

남가주 소식

- ◆ 청년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7월1일(목)~4일(주일)
 ● 장소 : Divine Word Retreat Center, Riverside
 ● 지도신부 : 선우 진 신부, 최석현 마르코 신부
 ● 참가대상 : 18세~33세 미혼 및 기혼
 ● 참가비 : \$160 * 신청 : 이유나 ☎(562)319-3456
 ● 주최 : 남가주 성령쇄신 청년 봉사회(KYCR)
- ◆ 남미 에콰도르 해외봉사단 모집
 ● 일시 : 7월5일~13일 * 장소 : 에콰도르 팔마본당과 공소
 ● 모집 : 의료진, 일반봉사자, 대학생
 ● 참가비 : \$1,500
 ● 주관 : 남가주 한인가톨릭해외봉사회
 ● 문의 : 김 안나 ☎(213)272-7404

이번 주 단체 모임

본당 성령세미나 최종일	파견미사 오후 4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김씨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이아가다 328-0847 6/19(토)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이경용 야고보 530-7702 6/19(토) 오후 7시
	3	신덕레 데레사 494-1390	신덕레 데레사 494-1390 6/17(목) 오후 8시1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김순희 모니카 328-1817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명렬 라파엘 374-1572 6/12(토)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권영옥 루치아 720-2876 6/15(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김화수 율리야나 213-248-4576 6/18(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이경수 헬레나 972-9193 6/9(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이남현 막시모 793-7733 6/11(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황지영 안젤라 895-8624 6/18(금) 오후 7시 성당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김재연 다두 634-2283 6/5(토) 오후 7시 강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6/12(화) 오후 2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이희영 안나 544-8245 6/18(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6/12(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김도완 다니엘 892-1213 6/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귀란 아베스 541-0767 6/8(화) 오전 10시30분

교우 가정 방문 ...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2010년 4월 중순부터 2개월째 접어든, 조용하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본당 사목 활동이 있다.

참여 대상이 백삼위 본당의 모든 신자들이니 만큼 적지 않은 시간과 끈기를 요하지만 어찌 보면 아쉬울 정도로 짧게 끝나는... 또 보편적이고 평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매우 사적일 수 있는 이 활동의 명칭은 ‘교우 가정 방문’이다.

‘교우 가정 방문’... 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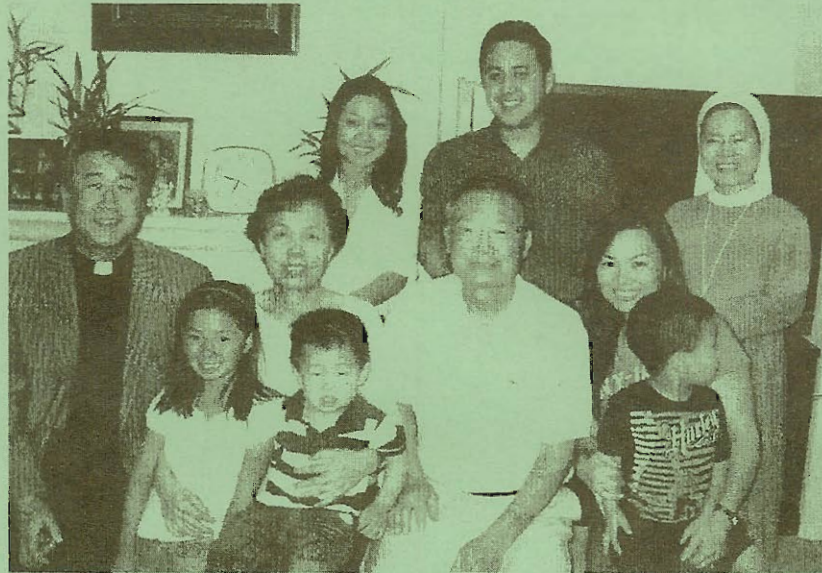
바쁘고 여유없다는 이민생활이지만 많은 교우들은 ‘백삼위 한인성당’의 단비 같은 신앙 생활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많은 행복과 위로를 받는다. 현재 교적상 등록되어 있는 백삼위 본당의 교우수는 대략 1,500여명, 약 530여 가구이며 이는 통계상 백삼위 한인성당이 남가주 한인 천주교회 내에서도 몇번째 안으로 크게 성장한 대표적인 한인 성당임을 보여준다. 특히 미사의 은혜와 더불어, 강력한 카리스마와 유머 감각을 동시에 가지신 신부님과 인자하신 수녀님의 모습은 많은 신자들이 존경과 신앙 생활의 모범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활/성탄 등 대표적인 대축일을 제외한 매주 4번의 주일미사 총 참석자수가 실제로는 600~700여명 안팎에 불과해 교적에 근거한 통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 공동체 활동이나 본당 행사에 소극적인 신자들이나 신부님과 수녀님께는 쑥스럽고 부끄러워(?) 미사후 번개같은 인사와 함께(또는 미사 파견 강복과 함께) 성당문을 나서는 신자들도 의외로 많다.

이에 보다 나은 본당 사목 발전을 위해 신부님과 수녀님이 ‘의기투합(?)’하셨으니 이것이 ‘교우 가정 방문’의 시작이다.

백삼위 한인성당에 교적을 둔 모든 신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우 가정 방문’ 활동의 목적은 1)신자들의 가정 축복, 2)교적 정리, 3)신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서로 더 많은 이해와 친교를 이루며, 또 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에 가까운 본당 사정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본당 사목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각 구역별 신청을 통해 6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번 가정 방문에서 이미 120여 가구 이상을 방문 하셨으며 이에



김병태 요셉 형제대에서 가족들과 함께 환히 포즈를 취하신 신부님과 수녀님

신청한 모든 가정들은 무료(?) 축복과 더불어 면담을 통해 깊은 은혜와 감사, 위로를 받았다. 지난 6월4일은 토렌스 북구역의 김 병태 요셉 형제님(현 사목협의회 감사, 성혈봉사자) 덕을 방문하셨다. 요셉 형제님은 면담 후 “구역 반장님에게 연락을 받고 신청했는데 이렇게 신부님 수녀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스러웠다”며 “이번 활동은 본당의 모든 교

우가정을 대상으로 하시니만큼 수줍음 많은 신자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기쁨을 함께 느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몸은 좀 고되고 시간도 걸리지만 신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더욱 큰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는 이장환 마르티노 주임 신부님은 “현재 구역별로 신청한 가정들은 6월 말까지 모두 방문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개별 신청은 계속 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줄것을 당부 하셨다.

면담 과정을 지켜보니 문득 자신이 가진것을 내 놓을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몇배나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본당 신부님의 강론 말씀이 떠오른다. 신앙의 모든 부분이 그렇겠지만 하다못해 긍정적인 생각과 30여분의 시간... 이렇게 작고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내어 드리면 가정에 대한 축복, 이민 생활에 대한 위로, 삶의 행복이란 큰 선물로 돌려주시니 말이다.

마지막 부록(?)으로 구역외 가정,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잘 모르는 가정, 사제와의 면담 올림증(?), 집 청소나 식사 내접에 대한 스트레스 등 여러가지 이유로 아직 망설이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교우 가정 방문’은 어디로 신청해야 하고 또 어떻게 이뤄지는지 소개 한다.

▶신청방법 : 각 구역 반장, 성당 사무실, 신부님, 수녀님(구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가정은 개별신청 가능)

▶방문 일정 : 화,수,목,금(낮시간은 오후 2시 부터, 저녁 시간은 평일 저녁미사 후부터 가능, 기타 일정을 원하는 가정은 사전 조율 요망)

▶순서 : 가정을 위한 기도과 축성 후, 교적정리 및 면담

▶평균 소요 시간 : 30분 내외

◆글·사진 : 최태훈 아오스딩 기자 / 백삼위 주보 편집위원회